

회고 2010

5·18 30주년

30주년을 맞은 5·18 민중항쟁은 '통합과 상생'을 이루지 못하고, 범국민적 시민·사회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역사적 숙제를 풀지 못했다.

뜻을 확고하게 세우야 할 이념(而立)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18은 '소통의 부재'라는 난관을 넘지 못했다. 반쪽짜리 기념행사와 5월 단체간 반목과 갈등, 끊이지 않는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문제까지 어는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다. 더욱이 5·18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 저조한 관심과 참여도 여전히 30주년의 의미가 퇴색했다.

▷성과는 미흡, 미완의 5·18=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5·18 순례지를 둘러보는 '역사 기행단'과 '주먹밥 만들기' 체험 행사, 5월 주요

5월단체 내분 등돌리는 시민

'반쪽짜리 기념행사'에 위상 실추 별관문제 찬성·철회 반복 혼란만 꾸준한 노력 전국·세계화 진일보

제 '칭'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는 5월 정신 계승에 초점을 둔 시민주도형 추모 행사로 시민 참여를 통한 전국화와 지역화의 완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참여율은 저조해 대대적인 민주축제가 아닌, 5월 관련 단체만의 기념행사가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30주년 기념행사가 주로

진보진영의 단체들로 구성, 진보 이념 반영에 치중함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해 관심과 참여가 낮았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 공식 추모곡에서 빠진 데에 반발한 5월 단체 관계자들이 국가 기념식에 대거 참석하지 않은 채 구묘역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치렀고, 지난 해에 이어 대통령 없는 기념식이 열렸다. 지역 정치권도 눈

앞의 6·2 지방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정부와 5월 단체간 중재를 외면했다.

2년 넘게 이어진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의도 수정안 찬성과 철회가 반복되며 이어 또다시 의견이 대립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5월 단체 통합 또 무산=올해 초 30주년을 맞아 '하나의 공명단체' 구성을 선언했던 5월 3단체의 통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5월 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로 거듭나 5·18 기념행사는 물론 5월 정신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줄 기반 마련 지역민들은 또다시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공명단체 등록이 이뤄지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어 5월 단체의 재정 개선은 물론 5·18 정신 계승 사업이나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관과 단체 구성 순서 등의 이견으로 통합에 차질을 빚어온 3단체는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까지 이르렀다. 결국 지난달 5·18 구속수상자회가 '5·18 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의 탈퇴를 선언했으며, 3단체의 통합은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5·18 기념재단도 행사위원회나 5월 단체들과 조화되지 못하고 독자적 행보로 난맥상을 드러냈다. 5월 단체와의 마찰로 인해 윤광장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식 사퇴하기도 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구세군 냄비 시중식... 사랑 담은 고사리손

구세군광주교회(담임사목 이기봉)가 11일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중식을 갖고 길거리 모금활동에 나섰다.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며 진행되는 거리모금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맛별이 부부 고민 덜 '온종일 돌봄교실' 광주·전남 63곳 내년 3월 운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이 내년 3월 광주 12개, 전남 51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운영된다.

12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이날 광주·전남 63개, 전북 8개교 등 전국 536개 학교(유치원 포함)를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학교로 선정했다.

이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를 확대한 개념으로 오전 6시30분~오후 10시까지 보육과 생활지도, 기초 학습을 맡게 돼 종일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초등학교 5000여곳에 6200개 돌봄교실이 있지만 보통 오후 5~6시면 끝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는 아침·저녁 식사는 물론 휴식·수면·씻기 등 생활습관 지도(유아),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 등 교과 교육과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과제·예습·복습 활동지원(초등)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각 학교에는 운영비로 교실당 평균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나, 각 시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다음은 광주·전남지역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학교

▲광주=우산초, 월곡초, 한마음, 정덕, 해바라기, 세라, 예담, 현대 리

라, 낙원, 리더스, 다모아, 혜화(이상 유치원)

▲전남=강진동초, 대구초, 완도초, 보길동초, 고금초, 화산남초, 여란진초, 곡성중앙초, 죽곡초, 옥과초, 고달초, 오산초, 보성남초, 예당초, 진원초, 북이초, 담양동초, 화순초, 화순순성초, 동면초, 사평초, 남면초, 해바라기유치원, 새싹유치원, 목포삼학초, 목포상동초, 목포유달초, 무안초, 일로초, 삼향초, 현경북초, 하의초, 비금동초, 영암초, 도포초, 시종초, 고흥동초, 녹동초, 성황초, 광양중앙초, 현대유치원, 청솔장미유치원, 순천조례초, 해룡초, 여수서초, 선영유치원, 여수남초, 여수중앙초, 여도초, 여수진남초.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화인코리아도 회생계획안 부결

금광기업 강제인가·파산 여부 15일 결정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금광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에 의해 부결된 데 이어 국내 대표적인 닭·오리 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의 회생계획안도 부결됐다.

광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2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화인코리아에 대해 회생성조, 동면조, 사평조, 남면초, 해바라기유치원, 새싹유치원, 목포삼학초, 목포상동초, 목포유달초, 무안초, 일로초, 삼향초, 현경북초, 하의초, 비금동초, 영암초, 도포초, 시종초, 고흥동초, 녹동초, 성황초, 광양중앙초, 현대유치원, 청솔장미유치원, 순천조례초, 해룡초, 여수서초, 선영유치원, 여수남초, 여수중앙초, 여도초, 여수진남초.

결정은 확정된다. 나중에 공장을 둔 화인코리아는 지난 1974년 창립해 국내 대표 닭·오리 가공업체로 성장했으나 2003년 말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소비감소, 자금난 등으로 부도가 나 2005년 4월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았다.

이후 일본 수출재개 등 활로를 모색했으나 다시 경영난에 빠져 지난 3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번 회생계획안 부결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금광기업 관계인 집회'에서는 금광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에 의해 부결처리됐다. 금광기업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법원에 강제인가 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광기업에 대한 강제인가나 파산 여부는 오는 15일 법원에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제1회 영어학력평가 오늘 추가접수 마감 문의: (062) 220-0555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식 모집 12월 17일~22일
[가] 원사접수 12월 1일~17일
[보] 교육사교육원 12월 1일~1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Dynamic BUSAN

2010 부산항 빛축제 2010년 12월 18일 ~ 2011년 1월 9일

제24회 부산북극곰수영대회 2011년 1월 23일

제2회 부산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2010년 11월 30일 ~ 2011년 1월 17일

부산그랜드세일 2011년 1월 10일~2월 28일 (50일간)

겨울 바다와 부산의 축제를 즐겨보자. 부산으로 오이쇼!

부산의 겨울은 트리문화축제, 부산항 빛 축제, 해맞이 축제 북극곰수영대회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부산그랜드세일 기간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을, 그리고 자갈치시장 등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한겨울에도 봄빛이 가득한 부산의 푸른 바다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행운과 건강을 빌어보자!
http://tour.busan.go.kr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